

HTML/CSS/JavaScript/JQuery/React/NCS프론트엔드개발자과정이수 김혜원입니다.



김혜원 1995년 (만 28세) | 여

✉ hw4688@naver.com

☎ 010-4688-9502

☎ 010-4688-9502

🏠 (47309)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신입	회사내규에 따름	부산전체 정규직	-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4.03 ~ 2019.08	졸업	경성대학교 (부산)	독일지역학	3.2 / 4.5
2011.03 ~ 2014.02	졸업	혜화여자고등학교	문과계열	-

경험/활동/교육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22.08 ~ 2023.02	교육이수내역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디지털컨버전스] 뷰(Vue) 활용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 과정22-1 1.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의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기, 네트워크, 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 운용 및 시험을 수행하는 기능, 기술에 관한 능력을 함양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각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형상관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능력을 함양 3. 관계형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사용하여 응용SW의 기능에 적합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조작하며, 제어하는 능력을 함양 4. 뷰(Vue) 학습을 통하여 MVM 패턴의 특징 및 서버 데이터 바인딩 등을 이해하고, Vue 활용 프로젝트를 통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을 함양
2021.08 ~ 2022.08	사회활동	경성대학교 K-MOOC사업단	- 운영·홍보 회의비 관리 및 회의록 작성 - 강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강좌 홍보 - 강좌 별 모니터링단 운영 - 강좌 별 TA(보조인력) 운영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	----	-----------	-----------	-------

2020.12	자격증/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1급	대한상공회의소	최종합격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HTML5 / 상 -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이해하여 설계하여 구축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CSS3 / 상 - 웹페이지의 다양한 구성을 이해하여 뷰 화면을 디자인에 맞게 제작하거나 수정 가능
jQuery / 중 - jQuery를 활용한 DOM조작 가능 - jQuery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기능 구현 가능
JavaScript / 중 - DOM 조작, 이벤트를 활용하여 동적인 요소 구현 가능
React / 중 기본적인 Router, Redux를 사용하여 웹페이지 만들기 가능.
Node.js / 중 - npm을 통한 모듈 활용 가능
Git-Hub / 상 - git 명령어를 사용하여 github와 동기화 하여 버전관리 및 협업 가능.
한컴오피스한글 / 중 - 기본 문서 작업 가능
Excel / 중 - 기본 문서 작업, 데이터관리, 함수 사용 가능
Access / 중 - DB 테이블 관리부터 입력을 위한 폼(Form) 기능, 출력을 위한 보고서(Report) 기능 사용 가능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경성대학교 K-MOOC 사업단 근무 당시 홈페이지 운영 중 HTML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태그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수정도 용이하여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사무직 업무는 단조롭고, 계약직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공과 무관하게 배울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며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는 일인 개발 공부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관을 통해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부터 심화 내용을 배워서 하나의 결과물 만들어냈을 때 뿌듯함은 정말 컸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에서 저는 개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획서 작성부터 시안, 아이디어 스케치, 프로토타입, 코딩까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나, 오류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동안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구글링해 보며 깊은 고민의 과정도 거치며 마침내 해결했을 때 뿌듯함과 만족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저의 성향과 개발 업무가 잘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반을 대표해서 모범상까지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며 발전해나가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

프론트엔드 개발 직무는 고객이 보는 모든 것을 개발하는 직무인 만큼 고객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을 담당하므로 회사의 첫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반영하는 개발팀에 도움이 되는 핵심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는 웹 환경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고객과 회사를 이어주는 믿음직한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프론트엔드 개발 분야는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의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트렌드를 꾸준히 익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할 때의 성취감을 이전 아르바이트할 때 경험으로 배웠기에 게을리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개발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최신 흐름을 자주 찾아보고,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습득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효율적인 협업까지 해낼 수 있는 신입 개발자 김혜원이 되겠습니다.

[성격의 장점]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책임감을 기본으로, 주변 사람의 '요구'를 잘 파악하곤 합니다.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를 할 때 판매하는 제품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면 그만큼 고객 응대에 적극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 만에 모든 위치를 파악했고, 수시로 변동되는 신상품과 이벤트 상품의 위치도 그때그때 제일 먼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매장의 기본 서비스 방식으로는 고객이 직원을 호출하면 그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지만, 전 제가 고객 입장이 되어 생각하며 능동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여 직원 호출을 쉽사리 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고객분들을 항상 먼저 이해하여 원하시는 상품을 찾아드리거나,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춘 상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추천한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이 만족해하시는 걸 보며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PB(자체 상표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점장님이 판매왕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주 정도 진행된 이벤트 기간 저는 PB(자체 상표 제품)에 대해 동영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직접 구매해 사용하며 장단점을 파악해 고객분에게 추천할 때 더 맞춤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천할 때 무조건 PB(자체 상표 제품) 상품으로만 추천하기보다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알맞은 제품을 추천해 드렸고 어느새 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판매왕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

K-MOOC 사업단에 처음 입사했을 당시 전임자가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혼자 모든 업무를 기존 파일을 보며 수행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기존 파일 하나하나 살펴 가며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사업비가 학기마다 변동되는 부분이 많아 개강하는 강의의 변동 사항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을 도와 강좌를 운영하는 보조 인력도 동시에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변동 사업비 관련 문서를 파악하여 보조 인력을 추가로 구하는 업무까지 개강 전에 미리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적극성'과 '근성' 덕분에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맡은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K-MOOC 사업단에서 근무할 당시 저는 항상 출근 시간 보다 여유롭게 출근했습니다. 그날 꼭 해야 할 일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맡은 업무에 누락이 되거나 실수하는 일 없이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모습'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와 팀장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맡은 일을 누락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이 수행하는 것부터가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업무에 있어서 협업이 필수인 만큼 이때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인정해 준 저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적극성'과 '근성'으로 같이 일하게 될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